

광주시, 15개 기업과 755억원 투자 협약

시청 비즈니스룸서 협약식
의료·에너지·전기차 등 분야
신규 고용 360여명 창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8일 오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국내외 투자기업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광주시는 8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큐솔라(주), (주)지오메디칼, 대한공조(주) 등 국내외 15개 기업과 투자금액 755억원, 신규 고용 360여 명을 창출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식에는 국내기업과 합작 투자를 진행하는 외국기업 3개사를 포함해 경기(2개), 충남(1개), 충북(1개), 전남(2개) 등 관외기업 9개 업체, 광주지역 6개 업체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투자 유형은 ▲에너지 분야 큐솔라(주), 호남대, 국제전기(주), (주)태신아이엔시 등 6개사 348억원 ▲'의료기기 분야' (주)지오메디칼, (주)바이원, (주)김즈메드 등 5개사 135억원 ▲'전기차용 배터리분야' (주)씨아이에스 100억원 ▲'전자부품 제조분야' 대한공조(주) 92억원 ▲'철구조물 제작분야' (유)케이테크코리아 등 2개사 80억원 등이다.

투자 지역은 에너지밸리 산업과 평동3차산단, 진곡산단으로, 공장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에너지밸리 산업단지에는 태양광 및 ESS분야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큐솔라(주)가 100억원, 산학연관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호남대가 80억원, 변압기·UPS 및 철도차량변압기 등 전기자재를 생산하는 국제전기(주)가 50억원, 태양광 LED가로등 및 일반 가로등과

ESS에너지 절감장치 제품을 제조하는 (주)삼호엔씨티가 48억원, 태양광 시공업체 (주)태양이엔씨가 20억원을 각각 투자해 공장을 신축한다.

평동 산업단지에는 대한공조(주)가 92억원을 투자해 신규 공장 및 설비투자를 통해 냉·난방 시스템의 핵심인 열교환기를 생산하고, 나주 소재 기업인 (주)태신아이엔시는 50억원을 들여 슬러지 및 생활쓰레

기 중 가연성 쓰레기만 분리해 자원화 및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기업과 합작을 통해 철 구조물을 생산하는 (유)케이테크코리아도 80억원을 투자한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의료 및 마용 콘택트렌즈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주)지오메디칼이 생산 확대를 위해 100억원 투자하며, 첨단 의료기기 생산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이탈리아 기업과 (주)김즈메드가 15억원을, 의료용품 제조·판매하는 콜람비아 기업과 (주)바이원이 20억원을 합작 투자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순도 나노알루미늄을 생산해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주)씨아이에스는 전기차용 배터리소재 분야 생산 확대를 위해 100억원을 투자해 진곡산단에 공장을 증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민선 7기 투자협약 목표를 170개사(국내 148, 외국 22)로 세우고, 300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 주력 산업과 연계한 국내 우량기업 중점 유치 및 타깃기업 발굴 등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가을철 미세먼지 '우리동네 대기질' 앱으로 확인하세요

시보건강환경연구원 실시간 정보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함에 따라 스마트폰 '우리동네 대기질' 앱을 활용해 미세먼지 측정용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도에 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앱은 위치정보를 활성화하면 전국 어디서나 스마트폰이 위치한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가장 가까운 측정소의 미세먼지 정보를 알 수 있다.

'우리동네 대기질' 앱에서는 시도별 대기 현황, 내일의 대기 정보, 대기질 주의보·경보현황,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7월 1일부터 미세먼지(PM-2.5) 주의보 기준이 90㎍/㎥에서 75㎍/㎥ 이상(2시간 지속)으로 강화됨에 따라 미세먼지가 점차 높아지는 11월부터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총 9개 대기측정소를 통해 지역별 미세먼지를 측정해 실시간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측정소 2곳을 확충하고 동내단위의 미세먼지 측정을 위해 대기오염이동측정차량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오염 저감을 위해 차량 2부제 운영, 도로 청소, 사업장 조업단축 등 오염원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시 보건환경연구원 전화(613-7620) 또는 홈페이지(http://hevi.gwangju.go.kr)에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발령 해제 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배석진 환경연구부장은 "대기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가용 이용 시는 공회전 금지 등 시민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마을 만들기 달인' 20일까지 신청하세요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회장 김병원)는 광주마을공동체 네트워크와 함께 '마을 만들기 달인' 찾기에 나선다.

8일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조성하고 있는 일반시민, 각종 단체, 기업을 찾아 '마을 만들기 달인'으로 지정한다. 올해는 특히 한 지역 혹은 골목에서 꾸준히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나눔과 소통을 실천한 사례를 찾기로 했다. 또 생활 속에서 재활용 분리 배출, 자원 순환 캠페인 및 교육활동 등 생활 속 자원 순환을 지속적인 실천하고 전파한 사례도 접수한다.

협의회는 지난해 남구 방림동에서 자원봉사와 환경교육, 마을 소통방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달인 등 7명을 선정한 바 있다.

공모 마감 후 기존 달인, 전문가, 교수 등 5인 내외의 심사위원이 서면검토와 현장실사를 통해 '2018년 마을 만들기 달인'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어르신들 맘으로 키운 고구마 200kg 다문화가족센터 등 전달



광주복지재단의 빛고을노인건강타운(본부장 문혜옥)이 최근 '빛고을 텃밭정원'에서 생산한 고구마 200kg을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4곳에 전달했다.

전달한 고구마는 '빛고을 텃밭정원'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20여 명 어르신들이 여름내 맘 풀리며 손수 가꾸온 친환경 농산물이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빛고을 텃밭정원' 체험프로그램을 3년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고려인 마을 등 관내 복지시설 4곳에 텃밭정원에서 키운 감자를 기증하기도 했다.

광주시립도서관 내일 공연·강연·전시 '3색 독서행사'

광주시립도서관은 10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공연과 강연, 전시로 꾸민 3색 독서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박완서 작가의 단편소설 '그 남자네 집'을 각색한 뮤지컬 형식의 문

학공연 ▲공부의 신으로 알려진 강성태 씨 초청 '66일, 습관의 기적'이라는 주제의 강연 ▲올 한해 전국 공공도서관 베스트 대출도서 100선 전시 등으로 진행된다. 이날 강성태씨는 강연에서 독서와 공부

를 게임처럼 재밌게 하는 법, 부담없이 좋은 습관을 만드는 법, 독서와 공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습관을 전달 예정이다.

참가자는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citylib.gwangju.kr)를 참조하거나 전화(613-7733)로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도시공사 공공임대 입주 자격 완화

광주도시공사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의 입주신청 자격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1순위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를 2순위로 확대했다.

도시공사는 8일 "광주시 광산구 우산로 17(우산동)에 위치한 하남시영2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24㎡에 신청할 경우 완화된 입주자격으로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이 완화된 아파트는 2018년 10월 31일 기준 하남시영2단지아파트 전용면적 24㎡(공가 118세대), 32㎡(공가 3세대)와 광주시

서구 운천로 32번길 23(금호동)에 위치한 금호시영3단지아파트 전용면적 24㎡(공가 38세대)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나 입주 자격이 충족돼야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고, 입주를 원하는 경우 거주하는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신청 후 약 2-3개월이면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이 완화돼 보다 많은 저소득층의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역 건설업체 전국 100대 건설사 협력업체 등록 지원

광주시는 8일 "지역 내 우수 전문건설업체가 전국 100대 종합건설업체 협력업체로 등록,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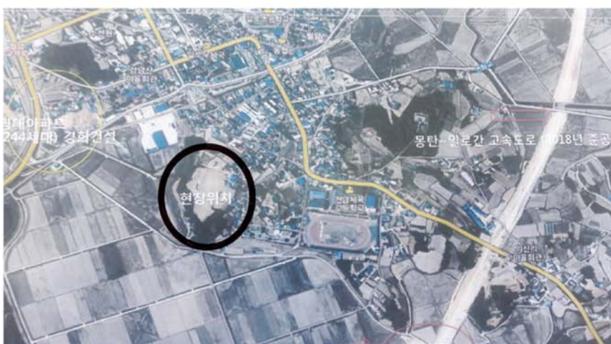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국 5만9000여 개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해 발표한 '2018 시공능력 평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내 우수 전문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광주지역 대한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 추천한 업종별

시공능력 상위 30% 이내의 우수 전문건설업체 중 20개 업종 460곳을 발굴했다.

시는 이들 우수 전문건설업체의 추천서를 제작해 전국 100대 종합건설업체에 배부하고, 지역 업체들이 전국 100대 종합건설업체의 협력업체로 등록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전문건설업체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지역 우수업체의 실적이 증가하고 지역 건설산업이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일로 월암리, 전원주택부지 급매



- ✓ 전남 무안군 월암리 62-12, 15, 16번지
 - ✓ 임야 6000평, 도시지역 8~10M 도로접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
 - ✓ 토목공사 완료, 전원주택지 최고(40채 가능)
 - ✓ 남약신도시 5분, 목포 10분, 광주 40분거리
 - ✓ 남약신도시 방향 4차선 도로 근접
 - ✓ 시세 - 42억(평당 70만원)
 - ✓ 급매 - 30억(일시불)
- 문의. 010-6834-7400

